

■ 논문 ■

## 대중가요에 나타난 이주와 이산: 초창기에서 1980년대까지

허 부 문

### I. 들어가며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모든 문학·예술 작품이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음은 필지의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대중가요<sup>1)</sup>야말로 절실하게 그 시대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해도 큰 이견은 없을 터이다. 우리의 대중가요 또한 탄생 이래 그 시대의 갖가지 모습을 표출해 왔다.

모든 문학과 예술 작품의 영원한 소재와 주제는 실연· 짝사랑· 이별을 포함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가요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중가요에는 망향(望鄉), 달리 말하면 고향 생각이 이에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해 왔다. 현대사의 한 시기에 대중들은 고국과 고향을 떠난 애환을 대중가요란 그릇에 담아 나타내었던 것이다.

망향은 이주와 이산<sup>2)</sup>을 전제로 한다. 망향과 이주·이산은 떼어놓고

1) 대중가요란 유행가, 재즈 송, 신민요, 만요(漫謠)를 모두 일컫는 용어이다. 이 영미·이준희 편 『사의 찬미 (외)』 (범우사, 2006), 279쪽. 이 글에서는 ‘대중가요’를 포괄적으로 사용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세분하기로 한다.

2) 이주(移住)는 “개인이나 종족, 민족 따위의 집단이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정착함”이란 의미이고, 이산(離散)이란 “전쟁이나 남북 분단 등의 사정으로 이리저리 흩어져 서로 소식을 모름”이란 의미이다.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이주」, 「이산」 항목. 이 글에서는 내용에 따라 함께 쓰거나 구분해 사용했다.

생각하기 힘들다. 이주와 이산 이후에 고향 생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망향’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우리 대중가요의 특색이다. 망향은 굴곡으로 얼룩진 한국 현대사와 걸음을 같이하면서 적어도 1980년대 중반까지 대중가요의 큰 줄기를 이룬 소재이자 주제였다.

이 글은 대중가요에 나타난 이주와 이산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아 그 속에 녹아있는 시대상 및 시대별로 달리 나타나는 이주와 이산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통해 대중가요 속의 망향가에 담겨있는 근현대 이주와 이산의 흐름과 특색의 의미를 찾아내려는 작업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대중가요를 자료로 하는 연구는 가요사(歌謠史) 그 자체의 연구에 치중해 왔다.<sup>3)</sup> 가요를 매개로 한 역사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었다. 이제까지 대중가요의 노랫말을 자료로 삼아 역사상을 더듬어 보는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sup>4)</sup> 그러나 기왕에 나온 연구들도 대중가요를 통해 근현대의 풍경과 시대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연구의 심도가 다소 미흡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sup>5)</sup> 필자는 이를 문학이나 음악 전공자들이 가요 연구를 주도해 온 한계이자, 역사 연구자들의 대중가요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sup>6)</sup>

---

3) 이영미의 일련의 저술인 이영미, 『한국대중가요사』 (시공사, 1998) 및 이영미, 『홍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황금가지, 2002)를 우선 들 수 있다. 박찬호 지음, 안동림 옮김, 『한국가요사 1』 (미지북스, 2009) 및 박찬호 지음, 이준희 편집, 『한국가요사 2』 (미지북스, 2009)는 가요사를 개관한 노작이다. 이밖에 최창호 지음, 강현 해설 『민족 수난기의 대중가요사』 (일월서각, 2000)는 자료집에 가깝다고 하겠다.

4) 이동순, 『번지 없는 주막』 (선, 2007). 장유정, 『오빠는 풍각쟁이야』 (민음in, 2006) 등이 그러하다.

5) 이영미, 『광화문 연가』 (예담, 2008)는 대중가요를 소재로 근현대 서울의 모습을 더듬어 본 책이다.

6) 이 글에서 제목은 발표 당시대로 표기하고, 노랫말은 모두 지금의 맞춤법으로 바꾸었다. 노랫말 앞의 숫자는 절(節) 표시이며, 숫자가 없으면 1절을 가리킨다. 제목 다음의 괄호 속에는 작사가, 작곡가, 가수의 이름과 발표 연도를 차례대로 표기했다.

## 대중가요에 나타난 이주와 이산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 대중가요를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중가요가 근현대라는 시대가 빚어낸 소산물이라면 가요 연구의 지평 확대와 근현대사 연구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도 역사 전공자에 의한 가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II. 일제의 식민 지배와 전시체제

#### 1. 대중가요의 등장과 방랑가요

1902년 12월, 121명의 조선인이 제물포 항구를 떠나 하와이로 향했다. 근대적 의미에서 이민의 효시이다. 근현대사 최초의 해외 이주였다. 미주(美洲) 지역은, 1905년의 멕시코 이민과 1921년의 쿠바 이민이 뒤를 이었다.

만주의 경우, 조선 중기 이래 조금씩 월경민(越境民)이 늘어나기 시작해 1860년 대에 들어와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한다. 일본 쪽을 살펴보면, 개항과 동시에 교류가 시작되면서 현해탄(玄海灘)을 건너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갔다. 이들과 그 후손이 이주와 이산을 노래하는 주체이자 화자(話者)가 되는 것이다.

대중가요가 나오기 이전인 이 시기에 고국을 그리워하는 노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미주 지역 동포들이 조국으로 들어가 항일운동을 일으키자는 목적으로 부른 「귀국가」<sup>7)</sup>와 안창호가 신민회(新民會) 사건 이후 미국으로 떠나면서 지었다는 「거국가」<sup>8)</sup>가 그것이다. 망국 이전의 일이다. 시기와 지역, 그리고 단순한 망향과 이향이 아니라는 점이 특이하다. 하지만 이러한 노래는 널리 불리지는 않은 듯하다.<sup>9)</sup>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을 강점한 식민 지배체제 초기인

7) 『신한민보』 1909. 4. 14.

8) 『대한매일신보』 1910. 5. 12.

9) 「귀국가」는 실제 불렸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이종연, 『신대한국 독립군의 백만용사야 -일제 강점기 거리의 노래사-』 (해안, 서울, 1998), 245쪽.

1923년에 최초의 번안가요 「탕자자탄가(蕩子自嘆歌)」(미상, 잉갈스, 박채선·이류색, 1920)<sup>10)</sup>가, 1926년에는 윤심덕이 일본에서 취입한 「사의 찬미」(미상, 이바노비치, 윤심덕, 1926)가 나왔다. 「사의 찬미」가 근대적 의미에서 최초의 유행가이지만, 유행가가 본격적으로 유행·보급되는 시기는 1930년대의 일이다. 레코드 회사의 등장이 그 배경으로 작용했다.

1930년대 초에 들어오면 일본 레코드 회사의 영업소가 속속 조선으로 진출하기에 이른다. 일본 축음기상회·빅타·콜럼비아·시에론 레코드사는 앞을 다투어 조선에 지사를 설립하고 영업에 나섰다. 또한 이철(李哲)은 조선인이 운영하는 유일한 레코드사인 오케 레코드사를 설립했다.<sup>11)</sup> 음반 시대와 함께 가요의 대중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들 레코드사에 의해 조선에도 본격적인 유행가 시대가 전개되었다. 이와 동시에 이주와 이산을 다룬 대중가요가 등장하고 유행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는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돌며 신세를 한탄하는 비탄조의 노래가 유행했다. 「방랑가」(이규송, 강윤석 편곡, 강석연, 1931)가 효시이며, 「황성옛터」(왕평, 전수린, 이애리수, 1932)와 「타향살이」(김능인, 손목인, 고복수, 1934)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방랑가요 혹은 유랑가요라고 부른다.<sup>12)</sup> 넓은 의미에서 망향가라고 할 수 있지만 망향가와 구별해야 하는 노래들이다.

이주와 이산이 의미를 지니려면 개인적 체험에서 벗어나 집단 이주와 이산을 전제하면서 역사적 의미를 띤 현상으로 나타나야 한다. 초창기의 방랑가요는 넓은 의미에서 망향을 노래하고 있지만 개인적 한(恨)의 표출이 주된 정조를 이루고 있다. 노래 속의 이주나 이산의 공간도

10)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로 시작하는 「희망가」의 본래 제목이다.

11) 박찬호 지음, 안동립 옮김 『한국가요사 1』, 181-189쪽.

12) 방랑가요가 다수 등장한 배경을 망국(1910)과 일제가 조선의 토지를 수탈하기 위한 토지조사사업(1910~1918), 일제가 조선을 일본의 식량공급지로 만들기 위해 1920년부터 1934년까지 실시한 미곡수탈정책인 산미증식계획의 결과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두 사업의 영향으로 조선의 농민은 토지로부터 유리되었으며, 소작인이거나 화전민이 되거나 대도시와 만주 등지로 떠났다. 소작쟁의가 빈발한 것도 이 무렵의 일이다.

명확하지 않다. 이산의 아픔을 제대로 엿볼 수 있는 유행가가 아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방랑가요 속의 관념적인 방랑 공간<sup>13)</sup>은 1930년대 중반 이후 만주나 간도 등지로 구체성을 띠기에 이른다. 본격적인 망향가의 등장은 15년 전쟁<sup>14)</sup>과 함께 찾아왔다. 조선도 전시체제로 접어들었다.

## 2. 만주에서 부르는 망향가

1931년에 단행된 일제의 만주 침략 결과로 이듬해에 꼭두각시 만주국(滿洲國)이 들어섰다. 신생국가 만주국과 조선총독부의 시책에 따라 일제의 이민 정책이 실시되었고, 조선인의 만주 이민이 늘어나기 시작했다.<sup>15)</sup> 이민의 증가와 함께 떠나온 고향을 그리는 망향가가 대거 만들어졌다.<sup>16)</sup> 망향가의 유행은 시기상으로 만주국의 수립과 궤적을 함께 한다고 하겠다.

### 오대강 타령

#### 2. 동쪽은 두만강 간도살이 가는 곳

고향을 떠나갈 때 눈물은 핏빛

(김능인, 문호월, 이난영, 1934)

---

13) 심지어 「방랑가」는 오로라가 보이는 북극, 「사막의 한」(김능인, 손목인, 고복수, 1935)은 사막을 방랑의 공간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14) 1931년의 만주사변에서 1937년 중일전쟁을 거쳐 1941년 태평양전쟁의 발발과 1945년 항복(일본의 표현으로는 종전) 시점까지 이어진 전쟁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15) 만주 지역의 한인인구는 1910년에 20여 만 명, 1930년에는 60여 만 명으로 늘어났다. 만주사변 이후 일제의 만주 개발을 위한 이주 정책에 따라 만주로 간 이주민 수효는 더욱 증가해 1939년에 100만 명을 헤아렸으며, 광복 직전인 1945년에는 170만 명이 넘는 한인이 만주에 거주하고 있었다. 김기훈, 「조선인은 왜 만주로 갔을까」, 『만주 - 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고구려연구재단, 2005), 188쪽.

16) 한석정은 만주를 소재로 한 유행가의 숫자를 조선에서 110곡, 일본의 경우는 400곡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석정, 「만주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만주 - 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고구려연구재단, 2005), 174쪽.

만주로의 이주를 다룬 최초의 대중가요는 유행가가 아니라 신민요<sup>17)</sup> 「오대강 타령」이다. ‘살이’란 무엇에 종사하거나 기거해 살아감을 나타낼 때 쓰는 의존명사이다.<sup>18)</sup> 유행가 「타향살이」도 있지만 ‘시집살이’, ‘처가살이’, ‘머슴살이’, ‘셋방살이’, ‘피난살이’에서 보듯 어느 것 하나 편하고 여유로운 삶은 아니다. 서민의 삶이다. 핏빛 눈물로 두만강을 건너가는 조선 농민의 앞길에 간도에서 기다리고 있을 ‘간도살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조선에서 만주로 가는 이민자들은 일본제국주의의 수탈의 상징인 열차에 의존해야만 했다. 「우리는 만주선」(조명암, 박시춘, 남인수, 1938)에서 열차에 몸을 실은 화자는,

고향에서 못 살 바엔 타향이 좋다  
찾아가는 그 세상은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모른다 모른다.

고 절규하듯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다. 고향에서 살 수 없어 만주로 가는 길은 이처럼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찾아가는 길이였다.

#### 뒤져본 사진첩

2. 이것은 누구더라 이것은 누구더라  
옳지 옳지 알았다 바로 그 여자로군  
스무 살 적 처음 만난 잊지 못할 고이비토<sup>19)</sup>  
회사원 처음 되어 월급 타던 토요일  
백화점 식당에서 생긱 웃던 아가씨  
부끄러워 말 못 하고 우물쭈물 하던 아가씨  
저 멀리 북간도로 울며울며 갔다지

(강해인, 김해송, 김정구, 1939)

17) 신민요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기존의 민요와 달리 민요의 형식과 내용을 따르지만 작사가와 작곡자 및 이를 노래한 가수가 알려진 민요를 가리킨다. 김세레나가 부른 일련의 노래들이 대표적이다.

18)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살이」 항목.

19) 고이비토(こいびと)란 일본어로 연인이라는 뜻이다.

어느 한가한 시간에 사진첩을 뒤적이다가 한 장의 사진에 눈길이며문다. 사진 속에서 첫사랑의 젊은 여인이 방긋 웃고 있다. 당시로서는 최고 멋쟁이들의 데이트 코스였던 백화점<sup>20)</sup> 식당에서 식사하던 추억을 떠올리던 나의 마음은 우울해진다. 울면서 북간도로 떠났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기 때문이다. 화려한 도시 생활을 접고 팍팍한 삶이 기다리는 북간도로 가야만 했던 여인의 심정을 생각하니 다시 한 번 가슴이 막막해진다.<sup>21)</sup>

### 찔레꽃

1.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초가삼간 그림습니다  
자주 고름 입에 물고 눈물 젖어  
이별가를 불러 주던 못 잊을 동무야

2. 달뜨는 저녁이면 노래하던 세 동무

천리 객창 북두성이 서럽습니다.  
삼년 전에 모여 앉아 백인 사진  
하염없이 바라보던 즐거운 시절아

3. 연분홍 봄바람이 돌아드는 북간도

아름다운 찔레꽃이 피었습니다  
피꼬리는 중천에 떠 슬피 울고  
호랑나비 춤을 춘다 그리운 고향아

(김영일, 김교성, 백난아, 1942)

「찔레꽃」은 현재 지상파 방송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성인 대상의  
가요 프로그램 ‘가요무대’에서 「울고 넘는 박달재」(반야월, 김교성,

20) 1906년에 미스고시(三越), 21년에 조지야(丁字屋), 22년에 미나카이(三  
中井), 26년에 히라다(平田) 백화점이 각각 충무로에 세워져 조선 중소상인들의  
자본을 잠식해 나갔다. 1937년에는 박흥식이 화신 백화점을 열었다. 조선인  
이 세운 최초의 백화점으로 종로의 명물이 되었다.

21) 「뒤져 본 사진첩」은 만요(漫謠)이다. 만요란 해학과 풍자로 현실을 꼬집는  
노래이다. 유행가보다 만요가 오히려 시대 모습을 생생히 그려내고 있는 경  
우가 많다. ‘해학과 풍자’라는 표현 방식 때문에 총독부 당국의 사전 검열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않았을까.

박재홍, 1950)와 함께 가장 많이 전파를 탄 노래이다.<sup>22)</sup> 1942년에 발표되었지만 만주 지역과 대한민국의 왕래가 끊어진 해방 직후에 크게 유행했으며, 작곡가가 월북했다는 소문이 나돌아 한때 금지곡 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가사 때문에 구설수에 휘말렸던 노래이기도 하다.<sup>23)</sup> 「쫄레꽃」은 김정일(金正日)의 애창곡 중의 하나라고 한다.<sup>24)</sup>

3절이 없으면 단순한 망향가로 오인하기 쉬운 노래이다. 노랫말 속에서 ‘남쪽 나라 초가삼간’과 ‘천리 객창 북두성’은 선연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초가삼간을 떠올리는 순간, 그리움은 풍경으로 치환(置換)되면서 떠 나온 고향과 동무들과 놀던 시절이 모두 그리워 3년 전에 찍은 사진을 꺼내어 하염없이 바라본다. 따뜻한 바람 부는 봄이 돌아와 쫄레꽃이 다시 피어난 북간도에 피꼬리가 중천에서 지저귀고 범나비가 춤을 추어도 고향은 더욱 그림다.

기회와 약속의 땅, 만주에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살아보려 해도 현실은 힘들기만 했다. 오족협화(五族協和)의 왕도낙토(王道樂土)라고 떠들어댄 총독부의 선전은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었던가?<sup>25)</sup> 두고 온 고향을 떠올리지만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답답한 마음을 하는 수 없이 망향의 노래를 부르며 마음을 달래었던 것이다.

### 3. 관부연락선에 얽힌 비애

많은 조선인들이 강제 병합 직후부터 일자리를 얻기 위해 간도로 대표되는 만주뿐만 아니라 일본 땅으로 건너갔다. 일본 땅에는 1940년에 124만 1천 명, 해방 직전에는 200만 명의 식민지 조선인들이

---

22) 『영남일보』 2007. 12. 27.

23) 쫄레꽃의 색깔은 보통 흰색이지만 노래에 나오는 쫄레꽃은 장미과에 속하는 덩굴장미를 가리킨다. 덩굴장미는 낙엽 활엽 관목으로 6~7월에 주로 붉은 꽃이 피고 줄기·잎자루·주맥에 가시가 돋는다.

24) 『아시아경제』 2011, 12. 21.

25) 만주국의 조선인은 일본인보다 못한 대우와 차별을 받는 2등 국(공)민이었다. 윤휘탁, 「만주국의 2등국(공)민 : 그 실상과 허상」 (『歷史學報』 169집, 2001).



## 대중가요에 나타난 이주와 이산

거주하고 있었다.<sup>26)</sup> 숫자상으로 보아 만주의 그것을 넘어선다. 그러나 만주와 달리 일본의 경우는 고향을 그리는 노래의 무대가 되기 어려웠다. 이른바 천황이 거주하는 대일본제국의 심장부이자 내지(內地)와 반도(半島), 다시 말해서 제국주의 본국과 식민지의 관계 등으로 항일 운동이 크게 제약 받았던 상황 등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서의 이주와 이산 상황을 알려주는 노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방아 짚는 색시의 노래」(김수경, 홍난파, 최명숙/이경숙/서금영, 1931)는 북해도(北海道) 탄광에 일하러 간 남편의 금의환향을 기원하는 신민요이다. 만주사변(滿洲事變)이 일어나 전시체제로 접어들어 징용령이 공포되기 이전의 일이다. 그보다 아래의 유행가들을 주목해 보자.

### 연락선은 떠난다

연락선 고동소리 울어울어 주는데  
잘 가소 잘 있소 이별 슬픈 밤 부두  
진정코 당신만을 진정코 당신만을  
사랑하는 까닭에 눈물을 삼키면서  
떠나갑니다 울지를 말아요  
(박영호, 김송규, 장세정, 1937)

### 눈물의 금강환

2. 천만층 물굽이에 운명을 띄우고  
바람이 부는 대로 떠다닐 몸이라  
가기는 간다만은 가기는 간다만은  
꿈은 차마 두고 간다  
(박영호, 전기현, 박향림, 1938)

여기에서 연락선은 관부연락선(關釜連絡船)을, 금강환(金剛丸)은

26) 總理府統計局, 『國勢調査』 1940년 판 및 후생성 원호국, 『원호 50년사』.

연락선의 이름을 가리킨다. 관부연락선은 한국의 부산(釜山)과 일본의 시모노세키(下關) 사이를 항해하던 정기연락선이었다. 일본 철도성 소속으로 1905년에 처녀 취항해 태평양전쟁의 종식과 동시에 운항을 멈추었다.

‘관부연락선’이라는 말 속에는 식민지 시대 우리 민족의 한과 피눈물이 흥건히 배어있다. 토지를 빼앗기고 절박한 생존을 위해 현해탄을 건너간 무수한 한국인의 상처와 슬픔이 관부연락선에 깃들여 있었다. 그 당시 조선인 선객은 '도항증명서(渡航證明書)'를 가진 사람만 연락선에 오를 수 있었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배를 타고 건너와도 좋다는 서류였다.

관부연락선에 몸을 싣고 일본으로 떠난 한국인들은 구주탄광, 북해도탄광, 군함도 등지에서 민족차별과 인간 이하의 천대를 받았다. 심지어 학살까지 당했다. 1923년에 일어났던 관동대지진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한국인 학살사건의 희생양이 되기에 이르렀다. 관부연락선은 일본의 식민지 경영과 한반도 강점의 부조리한 현실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축소판이었다.

「연락선은 떠난다」의 가사를 겉으로 보면 연인과의 평범한 이별 장면이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별과 눈물의 의미가 범상치 않다. 식민지의 고통과 한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아챌 수 있다.<sup>27)</sup>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산 설고 물 설은 일본 땅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것이다.<sup>28)</sup>

#### 4. 징병과 징용

일제는 1910~20년대에 농토와 토지를 빼앗는 물적 수탈로 조선인들을 대거 만주로 내몰았다. 1930년대 후반부터는 인력 수탈까지 자행하기에

27) 징용에 강제동원된 우리 동포들은 「연락선은 떠난다」의 구슬픈 곡조에다 ‘연락선은 지옥선’이라고 가사를 바꾸어 자신의 슬픈 심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28) 「울며 헤진 부산항」, (조명암, 박시춘, 남인수, 1940)도 관부연락선에 얽힌 비애를 노래한 유행가이다.

이른다.<sup>29)</sup>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전세를 만회하기 위해 조선인을 대거 동원했다. 지원병, 징용, 징병, 학도병, 일본군 위안부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일제가 필요로 하는 지역에 배치되어 극한의 삶을 견뎌야만 했다. 장소는 중국, 일본, 동남아, 남태평양, 사할린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대중가요의 공간적 범위는 이들 지역으로 확대되었다.<sup>30)</sup>

이 시기에 이산을 다룬 노래로는 북해도에 징용 간 동포들이 불렀다는 「뺨아도 아리랑」이 있었다.<sup>31)</sup> 「아리랑」을 개사한 이른바 ‘노가바’ 형태이다. 그러나 이 노래는 상세한 가사가 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널리 불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징병과 징용, 그리고 학도병과 일본군 위안부의 현장이었던 중국과 남태평양 전선에 동원된 조선인들에게 고향과 고국은 무엇보다도 그리운 대상이었다. 이들이 자유로이 망향가를 만들어 부르고 퍼뜨리기로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히려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남쪽의 달밤」(조명암, 박시춘, 남인수, 1942)<sup>32)</sup>처럼 군국주의 일본의 전시 시책에 맹종한 무수한 친일가요가 그러했다. 우리 가요사에 친일가요와 군국가요가 대거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상황을 노래한 조선인들의 정서는 더 이상 지원병, 징병, 학도병, 징용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해방 이후에 표출되었다.

## 고향만리

29)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이듬해 2월에 육군특별지원령을 공포했다. 39년 10월에는 국민징용령 실시, 43년 3월에는 징병제 공포, 그해 10월에는 학병제 실시, 44년 8월에는 여자정신대근무령을 공포해 차례차례 조선인을 사지로 내몰았다. 징용의 경우, 일제가 항복할 때까지 45만 명이 동원되었다.

30) 태평양전쟁 초기에 전선이 남태평양까지 이동하면서 대중가요의 공간적 무대도 확대되었다.

31) 이중연, 『앞의 책』, 435쪽.

32) 2절의 가사 일부를 소개한다. “남쪽의 항구 쌍돛대 화륜선 위에/고향을 찾아 가는 내 마음이 흐른다/어머니 불러보는 어머니 불러보는 진중의 달밤”.

1. 남쪽나라 십자성은 어머니 얼굴  
눈에 익은 너의 모습 꿈속에 보면  
꽃이 피고 새가 우는 바다가 저편에  
고향 산천 가는 길이 고향 산천 가는 길이 절로 보인다
2. 보르네오 깊은 밤에 우는 저 새는  
이역 땅에 홀로 남은 외로운 몸을  
알아주어 우는 거냐 몰라서 우는 거냐  
기다리는 가슴 속에 기다리는 가슴 속에 고통이 운다  
(유호, 박시춘, 현인, 1949)

화자가 지금 있는 곳은 동남아시아 말레이 제도의 중앙에 있는 보르네오(Borneo) 섬이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적도 바로 밑에 위치한다. 고온 다습하며 대부분이 밀림으로 덮여 있는데, 금·은·석유·다이아몬드 등 지하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일제는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보르네오 등 남태평양의 풍부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태평양전쟁을 일으켰고,<sup>33)</sup>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인력이 모자라자 조선인을 강제 징용·징병으로 내몰았다. 조선인들은 징용, 징병, 일본군 위안부 등의 온갖 명목으로 인력 공출을 당하면서 중국대륙 오지와 이름조차 생소한 남양(南洋)의 섬 등, 요컨대 일본군이 진주(進駐)·점령한 거의 모든 지역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열대·아열대의 찌는 듯한 태양 아래 혹독한 노동과 성적 수탈을 당하면서 인간 이하의 생활을 견뎌내야만 했다.

「고향만리」는 그 자신 징용을 피해 중국으로 피신한 현인(玄仁)이 해방이 되자 상해(上海)에서 귀국한 후 부른 노래이다. 일제에 징용과 징병으로 끌려간 조선인이 밤하늘에 빛나는 남십자성을 바라보거나, 새 소리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소망이 담겨있다.

---

33) 일본군은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과 동시에 보르네오 함락에 나서 이듬해 4월에 점령했으며, 연합군의 탈환전은 1945년 5월부터 8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 대중가요에 나타난 이주와 이산

그러나 이 노래에는 보르네오를 비롯한 남태평양에서 조선인들이 겪었던 필설로 다 하기 어려운 인간 이하의 고통이 제대로 형상화되지 않고 있다. 어느 망향가와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이 다소 아쉽다. 「고향만리」가 해방 몇 년 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나온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 Ⅲ.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

#### 1. 해방과 귀국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찾아왔다. 살길을 찾아, 조선 독립을 위해, 또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타지로 이주해 이산의 슬픔을 맛보아야 했던 동포들은 하나둘씩 귀국길에 올랐다. 일제 패망 당시 500만 명으로 추정되는 해외 조선인 중 일본에서 140만 명, 만주에서 100만 명, 중국에서 10만 명, 동남아 등지에서 10만 명 정도로 모두 300만 명을 헤아렸다.<sup>34)</sup>

#### 귀국선

1. 돌아오네 돌아오네 고국산천 찾아서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 꽃을  
얼마나 외쳤던가 태극 깃발을  
갈매기야 웃어라 파도야 춤춰라  
귀국선 뱃머리에 희망은 크다
2. 돌아오네 돌아오네 부모형제 찾아서  
몇 번을 울었던가 타국 살이에  
몇 번을 불렀던가 고향 노래를  
칠성별아 빛나라 달빛도 흘러라  
귀국선 고동소리 건설은 크다

34) 송찬섭·김남윤·윤대원 공저, 『한국사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7), 431쪽.

(손로원, 이재호, 이인권, 1946)

이들은 꿈에서도 그리던 고국을 향해 귀국선에 몸을 실었다. 「귀국선」은 바로 작사가와 작곡가가 부산(釜山) 부두에서 귀환동포가 물밀듯 밀려드는 광경을 목격하고 만든 노래이다.<sup>35)</sup> 「귀국선」을 일관하고 있는 정조는 ‘감격과 희망’이다. 해방을 맞이한 벅찬 감격과 새로운 날을 기다리는 부푼 희망이 전편에 넘쳐나고 있다. 무궁화, 태극 깃발, 건설 등의 단어가 이를 웅변으로 증명한다.

그러나 감격과 희망은 잠시 뿐, 현실은 노랫말과 너무나 달랐다. 고국산천으로 돌아오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지만, 이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희망에 찬 새나라 건설이 아니라 실업과 기아의 괴로움이었다. 그들이 바라던 새나라는 강대국에 의해 허리가 잘렸다. 삼팔선이 들어선 것이다. 민족 분단이 시작되었다.

## 2. 남북 분단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분할한 이 분단선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태어났다. 미국이 미·소 사이의 한반도 육상작전과 일본의 항복 접수를 위해 구상한 경계선이 삼팔선이다. 소련도 미국의 제안을 반대 없이 받아들였다. 전쟁 이후의 처리 과정에서 내재된 미·소의 국제정치적 흥정과 이해관계가 작용한 결과이다. 6·25전쟁 이후에는 휴전선으로 바뀌었지만 삼팔선은 남한과 북한을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분열·대립시키는 민족분단선의 기원이 되었다.

### 가거라 삼팔선

1. 아아 산이 막혀 못오시나요  
아~아 물이 막혀 못오시나요  
다 같은 고향 땅을 가고 오련만

35) 박찬호 지음, 이준희 편집 『앞의 책』, 12쪽.

남북이 가로 막혀 원한 천리 길  
꿈마다 너를 찾아 꿈마다 너를 찾아  
삼팔선을 헤맨다

2. 아아 어느 때나 오시려나  
아~아 눈 올 때나 오시려나  
보따리 등에 메고 넘던 고갯길  
산새도 나와 함께 울고 넘었지  
자유여 너를 위해 자유여 너를 위해  
이 목숨을 바친다

(이부풍, 박시춘, 남인수, 1948)

애당초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설정한 삼팔선은 남북의 왕래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처음부터 통행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었고, 초기에는 통제가 느슨한 편이었다. 마침내 삼팔선은 남북의 강고한 체제 구축으로 가는 영구분단선으로 바뀌었다. 삼팔선을 경계로 나뉜 남과 북에서는 각기 다른 체제와 이념을 내세워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려들었다. 그 과정에서 이념에 배치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거주와 분묘(墳墓)의 땅을 등질 수밖에 없었다.

「가거라 삼팔선」은 이 무렵에 나왔다. 삼팔선 획정에 대한 원망과 목숨을 걸고 삼팔선을 넘어 온 고생담을 그리고 있다. 오래 동안 살아 온 정든 고향을 뒤로 하고 가족과 헤어져 남으로 내려 온 월남민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노래이다. 분단 현실에 대한 원망과 통일에 대한 염원이 엮여 있다.<sup>36)</sup> 「가거라 삼팔선」은 구전으로 전해져 북에서도 널리 불렸다고 한다.<sup>37)</sup>

삼팔선을 넘어 남쪽 땅을 선택한 월남민들은 토지개혁, 친일파 청산, 종교인 탄압 등 북측의 체제 안정 작업의 여파로 대량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북에서 남으로 내려 온 이주민들의 수효는 연구자마다 제각각이다.

36) 「달도 하나 해도 하나」(김건, 이부풍, 남인수, 1949)는 민족의 분단이 굳어져 가던 무렵에 나온 노래로 통일을 갈망하고 있다.

37) 박찬호 지음, 이준희 편집 『한국가요사 1』, 61쪽.

남에서 북으로 향한 월북민들의 숫자는 제대로 된 통계마저 나와 있지 않다.<sup>38)</sup>

삼팔선이 들어선 후, 민간에서 삼팔선 철폐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통일을 갈망하는 분위기와는 아랑곳없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분단의 고착을 향해 가고 있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실시되었고,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북한에서도 같은 해 8월 25일,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들어섰다. 남과 북의 분단이 완벽하게 현실화 된 것이다.

### 3. 전쟁

남북의 분단은 전쟁으로 이어졌다. 현대사 최대의 비극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아직까지 그 명칭조차 통일되지 않은 이 전쟁은 3년여에 걸쳐 계속되었고, 이 기간 동안 크게 두 차례에 걸쳐 이주와 이산이 발생했다. 첫째는 북한의 남침 직후 부산과 대구 지역으로의 피난이다. 다음은 1·4 후퇴로 총칭되는 피난 사태 시기의 대거 남하였다.<sup>39)</sup>

북한군의 기습으로 낙동강까지 밀리던 풍전등화의 첫째 시기에는 이산의 아픔을 노래할 여유조차 갖지 못했다. 1·4 후퇴 이후 평택-삼척선까지 밀렸던 유엔군과 국군이 서울을 다시 탈환한 후에 비로소 노래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전선이 한반도의 중부에서 고착화되면서 부산이 임시수도로서 본격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한 때였다. 개전 직후부터 서울을 점령한 북한은 3개월 동안 남한을 통치했으나, 유엔군의 인천 상륙으로 보급선이 끊어졌다. 뒤 이은 서울 수복으로 북한군은 북으로 퇴각하기에 이른다. 후퇴하는 북한군은 술한 남한 인사들을 북으로 끌고 갔다. 남북자의 발생이다.

---

38) 김보영, 「분단과 전쟁의 유산, 남북 이산(분단 디아스포라)의 역사」 (『歷史學報』 212집, 2011), 97~100쪽.

39) 물론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으로 북행을 선택한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연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82,959명에 달하는 납북자<sup>40)</sup>와 그 가족의 이산을 다룬 노래에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반야월, 이재호, 이해연, 1956)가 대표한다. 전쟁 중에 딸을 잃은 작사가의 실제 체험이 담겨 있는 이 노래에는 납북당한 남편을 그리며 어린 자식을 힘들게 키우는 여인의 창자를 끊는 아픔이 배어있다.<sup>41)</sup>

1·4 후퇴로 임시수도 부산은 피난민들로 넘쳐났다. 전국 각지에 몰려든 피난민들은 부산에서 살 길을 찾아야만 했다. 어렵사리 부산항에 도착했으나 살아갈 일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두고 온 고향을 그리는 노래가 절로 나왔다.

### 함경도 사나이

1. 흥남 부두 울며 찾던 눈보라 치던 그날 밤  
내 자식 내 아내 잃고 나만 외로이  
한이 맺혀 설움에 맺혀 남한 땅에 왔건만  
부산 항구 갈매기의 노래조차 슬프구나  
영도다리 난간에서 누구를 찾아보나
2. 동아극장 그림 같은 피눈물 젖은 고향 꿈  
내 동리 물방아도는 마을 언덕에  
양떼 몰며 송아지 몰며 버들피리 붙였소  
농토까지 빼앗기고 이 천리 길 배를 굶고  
남포동을 헤매 도는 이 밤도 비가 온다  
(손로원, 나화랑, 손인호, 1953)

필설로 나타낼 수 없는 흥남 부두의 혼란 중에 처자와 생이별하고 부산 항구에 발을 디디고 살아간다.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영도다리에서

40)宋政勳 編輯, 『寫眞で見る韓國戰亂三年史』(國際報道聯盟, 東京, 1953), 20쪽.

41)동요 「꽃밭에서」(어효선 요, 권길상 곡, 1952)는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어린이의 슬픈 마음을 담아내었다.

서성이기도 해보지만 소식조차 들을 수 없다. 우연히 동아극장<sup>42)</sup> 앞을 지나가다 간판 그림을 보고 고향생각을 떠올린다. 북한의 토지개혁 정책으로 빼앗긴 농토, 그 속에서 뛰놀던 유소년시절의 추억이 떠올라 비오는 남포동의 밤거리를 헤맨다.

1950년 12월 말에 흥남 철수작전<sup>43)</sup>이 전개되었다. 흥남 부두에서 벌어진 이별의 아픔을 다룬 유행가로는 「굳세어라 금순아」(박시춘, 박시춘, 현인, 1953)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함경도 사나이」야말로 전쟁 시기 임시 수도 부산을 배경으로 월남 피난민들의 애환과 전체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고 있다고 하겠다.

### 경상도 아가씨

1. 사십 계단 층층대에 앉아 우는 나그네  
울지 말고 속 시원히 말 좀 하세요  
피난살이 처량스레 동정하는 판자집에  
경상도 아가씨가 애처로워 묻는구나  
그래도 대답 없이 슬피 우는 이북 고향  
언제 가려나
2. 고향 길이 틀 때까지 국제시장 거리에  
담배장사 하더라도 살아보세요  
정이 들면 부산항도 내가 살던 정든 산천  
경상도 아가씨가 두 손목을 잡는구나  
그래도 눈물만이 흘러 젖는 이북 고향  
언제 가려나  
(손로현, 이재호, 박재홍, 1955)

---

42) 동아극장은 부산국제영화제의 현장인 극장거리에서 한 블록 떨어진 남포동에 있었다. 1970년대에 들어 TV에 밀려 영화산업이 사양길을 걸을 때 문을 닫았고, 지금 그 자리에는 백화점이 들어서 있다.

43) 중국군이 한국 전쟁에 개입하면서 전세는 UN군측에 불리해졌다. 1950년 12월 15일에서 12월 24일까지 열흘 동안 동부전선의 미군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이 흥남 항구에서 피난민과 함께 선박편으로 빠져나온 작전이 흥남철수작전이다. 이때 남으로 내려 온 북한 동포는 10만 명에 달했다.

「경상도 아가씨」도 월남한 피난민이 부산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국제시장에서 담배장사<sup>44)</sup>라도 하며 팍팍한 피난살이를 버티다가 40계단<sup>45)</sup> 층층대 위 판자촌<sup>46)</sup>에 앉아 쉬면서 눈물을 쏟아낸다. 그 새 정(情)이 든 경상도 아가씨가 부산 항구에 정을 붙이고 고향처럼 여기며 견뎌보라고 위로하지만 두고 온 이북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다.

### 이별의 부산 정거장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운다  
한 많은 피난살이 설움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자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피 우네  
이별의 부산정거장

(호동아, 박시춘, 남인수, 1954)

지루하게 끌어온 휴전협정이 타결되면서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상태에서 끝이 났다. 그해 8월 15일 정부는 환도를 선포했다. 남으로 내려 온 피난민의 일부는 부산에 계속 등지를 틀었고, 휴전선 이남에 고향을 둔 사람들은 서울이나 연고지를 향해 떠났다. 부산역은 환도하려는 인파로 넘쳐났다. 전쟁 초기와 1·4 후퇴

44) 여기에서 말하는 담배장사는 번듯한 점포에서 운영하는 담배 소매업이 아니다.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소량의 양담배를 목판 위에 얹어놓고 좌판을 벌이거나, 그도 아니면 목판을 목에 걸고 거리를 오가며 행인에게 판매하는 형태이다. 뒤에 나오는 「어린 결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당시에는 양담배 소지, 판매, 흡연 행위가 모두 불법이었다.

45) 40계단은 부산 중구 광복동에서 동광동과 영주동으로 올라가는 통로이다. 40계단을 오르면 동광동과 영주동 산언덕에 피난민들의 보금자리였던 판자촌이 무질서하게 늘어서 있었다. 현재 40계단 하단에는 「경상도 아가씨」 노래비가 세워져 있다.

46) 차철욱, 류지석, 손은하, 「한국전쟁 피난민들의 부산 이주와 생활공간」(『民族文化論叢』 45,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2010)은 한국전쟁 시기 부산으로 남하한 피난민들의 주거 공간 마련과 그에 대한 당국의 대책을 고찰한 글이다.

시기에 부산으로 향했던 이주의 물결은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한국 가요계를 대표하는 가수 남인수가 부른 「이별의 부산 정거장」은 당시의 풍경을 잘 그려내고 있다.

전쟁은 수많은 이주와 이산을 낳았고, 이주와 이산<sup>47)</sup>의 슬픈 사연은 바로 대중가요에 반영되었다. 떠나온 북쪽 고향을 그리는 노래가 술하게 등장했다. 「꿈에 본 내 고향」(박두환, 김기태, 한정무, 1954), 「한 많은 대동강」(야인초, 한복남, 손인호, 1959), 「꿈에 본 대동강」(박대림, 전오승, 박재홍, 1955), 「평안도 사나이」(이철수, 전오승, 최갑석, 1958) 등이 대표적이다. 「꿈에 본 내 고향」은 평양(平壤) 출신의 한정무가, 「한 많은 대동강」은 평북 창성(昌城) 출신의 손인호가 노래했다. 그 자신 실향민인 가수들이 불러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유행가들이다.

### 어린 결심

한청빌딩 골목길 전봇대 옆에  
나는야 구두땀이 슈우샤인 보이  
나이는 열네 살 내 고향은 황해도  
피난 올 때 부모 잃은 신세이지만  
구두 땀아 고향하는 학생이래요  
(반야월, 이재호, 남인수, 1957)

전쟁은 부모와 자식, 아내와 남편의 이산을 가져왔다. 「어린 결심」은 황해도에서 월남한 14세 소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노랫말 속의 화자는 피난 도중에 부모를 잃고 월남해 종로 한청빌딩<sup>48)</sup> 골목에서

47) 「눈물의 자장가」(강사랑, 박춘석, 백일회, 1958)는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어린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여인의 삶을 담고 있다.

48) 한청빌딩은 옛 화신백화점(지금의 국제청) 맞은 편 보신각 부근에 있었다. 1935년에 세워졌는데 일제 시기에는 냉면 식당으로 유명했다. 해방 직후에는 좌익문학가동맹이 입주해 있었던 까닭에 좌익 집회가 빈번하게 열리곤 했다. 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 초까지는 사상계사가 입주해 있었다.

구두담이하면서 고향하는 어린 학생이다.<sup>49)</sup> 일견 곳곳하고 씩씩하게 보이지만 모든 월남소년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sup>50)</sup> 현실은 훨씬 비참했다. 많은 수의 소년들이 고아원으로 흘러들어갔으며, 일부는 걸인이나 양아치 혹은 폭력조직의 뜰마니 노릇을 하며 모진 세상의 풍파와 싸워나가야 했다.<sup>51)</sup>

#### 4. 재일교포 복송

해방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고국행을 선택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일본·중국·만주 등지에 남아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인 동포들도 많았다. 이들이 해외교포로 불리게 된다. 남북 분단으로 적성(敵性) 지역이 되어 버린 중국과 만주의 동포들은 왕래는 고사하고 소식조차 주고받을 수 없었다. 일본의 경우는 조금 달랐다. 그러나 일본에 남은 재일교포들은 이방인이 되어 일본 사회의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또는 귀화(歸化)의 유혹에 시달리며 생존과 싸워야 했다.

1955년 2월, 북한 외무상 남일(南日)은 6·25전쟁으로 인한 북한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재일교포의 귀환을 추진했다. 나아가 남일은 이들이 귀환했을 때의 생활을 최대한 책임지겠다고 대내외에 공식 천명했다. 당시의 일본은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각종 사회·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이었다. 양측의 이해관계는 서로 일치했다. 재일교포 복송 문제가 대두한 것이다.

건국부터 당시까지 대한민국의 재일교포 대책은 무대책이었다고

49) 2절과 3절에서는 담배장수와 신문팔이로 그리고 있다.

50) 「생일 없는 소년」 (최치수, 김성근, 김용만, 1958).

51) 이러한 측면에서 대중가요는 현실의 삶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중가요야말로 사회 모습을 가장 잘 그려내고 있다는 주장에는 재고가 필요하다. 짧은 분량이라는 형식상의 제약도 있기는 하다. 일제 치하부터 권위주의 시절까지는 당국의 검열도 거쳐야 했다. 일제 치하에 탄생해 성장한 우리의 대중가요가 출발부터 체제순응적이었고 지배 논리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이영미의 주장은 음미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 이영미·이준희 편, 『한국가요사 2』, 292쪽.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일이 있고나서야 대한민국 국회는 재일교포복송반대전국위원회를 구성해 거국적인 반대 시위를 주도해 나갔다. 한편으로는 정부와 연대해 재일교포 복송을 저지시키기 위한 외교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했다. 한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일본 정부는 1959년 8월 13일 인도의 캘커타(지금의 콜카타)에서 '재일교포복송에 관한 협정'에 정식 조인했다.

1959년 12월 14일 975명의 복송 재일교포 1진이 니가타(新潟) 항구를 출발해 함경북도 청진(淸津)을 향해 떠난 게 복송의 시작이었다. 복송선을 탄 재일교포는 출신 지역은 남한이지만 조총련(朝總聯) 계열이 대부분이었다. 협정의 만료시한인 1962년 11월 12일까지 복송된 재일교포의 수는 7만 7,288명에 달했다. 양측은 협정 연장에 합의해 재일교포 복송을 계속 추진했다.<sup>52)</sup>

### 눈물의 복송선

바람도 차가운 부두 이 밤도 깊어 가는데  
내일이면 떠나간다 한 많은 복송선  
부모형제 타국 땅에 버리고  
가슴 아픈 두 번 이별에 아~아 목이 메인다  
속아서 떠나가는 떠나가는 눈물의 복송선  
(박춘석. 박춘석, 문주란, 1976)

「눈물의 복송선」에서는 재일교포 복송을 북으로 떠나는 교포가 아닌 제3자가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노랫말 속의 화자가 복송 당사자라면 ‘속아서 떠나가는’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초창기 복송선에 몸을 실은 재일교포들은 북한의 선전을 그대로 받아들여 약속과 기회의 땅으로 간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52) 그러나 복송 교포의 비참한 생활상이 알려지자 그 수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복송을 희망하는 재일교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복송 사업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복송의 상징인 복송선 만경봉호(萬景峰號) 역시 부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는 실정이다.

## 대중가요에 나타난 이주와 이산

재일교포들은 일제 식민 통치 시기에 조선에서 징용이나, 일자리를 얻기 위해 바다를 건너 이주한 사람들이다. 해방이 되기까지 갖은 고생을 겪었는데 해방이 된 후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남한 출신이 대부분인 조총련계 재일교포들은 북한에 오면 잘 살게 해주겠다는 선전을 처음에는 굳게 믿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제 2의 고향이었던 일본에서 부모형제와 다시 헤어지는 이산의 아픔을 감수해야만 했다. 「눈물의 북송선」 속의 ‘가슴 아픈 두 번 이별’이라는 구절의 심장한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이 노래는 1976년에 발표되었으나, 1959년에 시작된 재일교포 북송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북송 개시로부터 정권이 3번 바뀐 1976년은 재일교포들이 대거 모국 방문에 나선 해이다. 「눈물의 북송선」은 바로 재일교포 모국방문 사업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재일교포의 모국방문을 직접 다룬 유행가는 4장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 IV. 산업화와 이촌향도, 기타

#### 1. 산업화와 이촌향도

1961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집권 세력은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그 계획은 조금씩 실적을 올려 나갔다. 한국도 산업화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1962년에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곳곳에 공업단지가 들어섰으며 국민소득은 증가했고 대도시로 향하는 인구는 급격히 늘어났다. 이촌향도(離村向都)가 시작된 것이다. ‘잘 살아 보세’라고 외치면서 도시로 향하는 이주 행렬이 거대한 물결을 이루었다.

물레방아 도는데

1. 돌담 길 돌아서며 또 한 번 보고  
징검다리 건너갈 때 뒤돌아보며

서울로 떠나간 사람  
천리 타향 멀리 가더니  
새봄이 오기 전에 잊어버렸나  
고향의 물레방아 오늘도 돌아가는데  
2. 두 손을 마주잡고 아쉬워하며  
골목길을 돌아설 때 손을 흔들며  
서울로 떠나간 사람  
천리 타향 멀리 가더니  
가을이 다 가도록 소식도 없네  
고향의 물레방아 오늘도 돌아가는데  
(정두수, 박춘석, 나훈아, 1972)

「물레방아 도는데」는 각 절의 전반부에서 고향 풍경 및 고향 사람과의 이별을 못내 아쉬워하며 서울로 떠나는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sup>53)</sup>서울에서의 힘든 삶에 시달리는, 남자로 추측되는 떠난 사람은 고향에 남은 여인에게 소식조차 전할 여유가 없다. 고향의 물레방아는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도시에 왔으나 현실은 장밋빛이 아니었다. 전태일(全泰壹)로 상징되는 근로자들은 청계천 피복 공장이나 구로공단의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팍팍한 삶을 꾸려가야만 했다. 그들에게 서울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고향 생각은 자연스런 현상이었고 이를 노래한 대중가요가 속속 나왔다.

#### 고향무정

1. 구름도 울고 넘는 울고 넘는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53) 같은 해에 나온 「서울로 가는 길」(김민기, 양희은, 1972)는 서울로 가는 모습을 훨씬 사실적으로 그려놓았다. 병든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이농(離農)한다는 내용이다. 운동권에서 즐겨 불렀다.



대중가요에 나타난 이주와 이산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산골짜엔 물이 마르고  
기름진 문전옥답 잡초에 묻혀있네  
2. 새들도 집을 찾는 집을 찾는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바다에는 배만 떠 있고  
어부들 노래 소리 멎은 지 오래일세  
(무인도, 서영은, 오기택, 1966)

산업화와 궤적을 함께하면서 전개된 이촌향도의 초창기에 나온 노래이다. 산촌이든 어촌이든 떠나 온 고향, 가기 힘든 고향을 그리는 심정이 담겨 있다. 서울로 대표되는 대도시의 생활이 고달플수록 타향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고향 생각은 더해 간다. 이향민의 마음은 스산하기 짝이 없다. 「고향무정」이 발표된 1966년은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마무리된 해이다. 이 무렵에 이미 고향은 무정(無情)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고향이 좋아

타향도 정이 들면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그 누가 말했던가 말을 했던가  
바보처럼 바보처럼  
아니야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  
향수를 달래려고 술에 취해 하는 말이야  
아아 타향은 싫어 고향이 좋아  
(고향, 남국인, 김상진, 1971)

아무리 무정한 서울 땅이라고 하더라도 정을 붙이고 살아보려 하지만 타향은 타향이지 고향이 될 수 없다. 타향도 정 들면 고향이라는 말에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고개를 저으며 고향이 좋다고 울부짖는다.

이정표 없는 거리

이리가면 고향이요 저리가면 타향인데  
이정표 없는 거리 헤매 도는 삼거리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 길 삼거리에 비가 내린다

(박대림, 정민섭, 김상진, 1970)

타향이 고향으로 생각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서울을 떠나 귀향하는 게 어떨까. 그렇지만 고향 사람들도 모두 서울로 떠났고 남아 있는 부모님도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온 나를 반가워 할 것 같지 않다. 이래저래 스산한 마음은 이정표조차 없는 삼거리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맨다.

고향 아줌마

1. 술잔을 들다 말고 우는 사람아  
두고 온 님 생각에 눈물 뿌리며  
망향가 불러 주는 고향 아줌마  
동동주 술타령에 밤이 싫구나 밤이 싫구나
2. 들어 찬 목로주점 나그네마다  
넋두리 하소연에 푸념도 많아  
내 고향 사투리에 고향 아줌마  
나그네 인생길에 불빛만 싫다 불빛만 싫다

(김진영, 정민섭, 김상진, 1971)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중반에 대량 발생한 이주의 당사자들은 이처럼 방황을 거듭했다. 그러다가 신산스런 도회의 삶에서 동향인(同鄉人)을 만나 향수를 달래어 보기도 했다.<sup>54)</sup> 「고향 아줌마」는 서울로 추정되는 타향의 주점에서 만난 고향 사람끼리

54) 「충청도 아줌마」 (김운하, 서영은, 오기택, 1966).

이주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광경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주모의 고향 노래와 고향 사투리를 들어도 한때 뿐, 여전히 서울의 밤과 밤거리의 불빛이 낯설기만 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다.

### 고향 역

#### 1. 코스모스 피어 있는 정든 고향 역

이뿐이 곱분이 모두 나와 반겨 주겠지  
달려라 고향 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 역

#### 2. 코스모스 반겨 주는 정든 고향 역

다정히 손잡고 고갯마루 넘어서 갈 때  
흰 머리 날리면서 달려온 어머니를  
얼싸안고 바라보았네 멀어진 나의 고향 역  
(임종수, 임종수, 나훈아, 1972)

견디기 어려운 도시 생활 속에 명절이 가까워 오면 망설이게 된다.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갈 수 있을까. 귀성(歸省)을 결심하고 나서도 고향 가는 길은 힘들기만 하다. 사흘 연휴에 교통 사정이 크게 나아진 지금도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하는 게 귀성 길이다. 정말이지 그 시절의 명절 귀향은 말 그대로 ‘귀성전쟁’이었다. 그래도 마음이 설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떠날 때 백발의 어머니가 달려와 배웅한 곳. 돌아갈 때는 여자 친구들이 마중 나와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곳. 그곳이 바로 코스모스초차 반겨주는 나의 고향이다.

유목사회가 아닌 농경사회에서 고향 떠나기를 싫어하는 안토중천(安土重遷)<sup>55)</sup>의 심정은 지역과 시대를 막론한 오래된 자연스런 현상일 것이다. 망향을 노래한 동서고금의 많은 문학·예술 작품들은 아직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삶이 농토와

55) 『한서(漢書)』 9 「원제기(元帝紀)」 “고향을 편안히 여기고 옮기기를 싫어하는 마음은 많은 사람들의 본성이며, 골육끼리 의지함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라는 바이다(安土重遷 黎民之性 骨肉相附 人情所願也)”.

그 주변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사람들에게 농촌 해체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 이촌향도가 이루어진 시기가 1960년대 중반~1970년대였다. 이 시기는 농업사회가 해체되면서 산업사회로 이행한 과도기였다. 이른바 압축성장(壓縮成長)의 결과,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도 빠른 속도로 변해갔다. 이주와 이산이 가져다 준 힘든 삶에 시달리던 시골 출신자들에게 극변(劇變)한 고향의 모습이 수많은 망향의 노래를 낳게 했을 것이다.

## 2. 제일교포 모국방문

1975년 가을, 적성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 혹은 조총련계 제일교포의 모국방문을 추진해 온 해외동포모국방문사업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이 사업은 사상과 이념의 차이로, 또는 공산권 등 국교관계가 없는 탓으로 모국방문이 어려운 해외동포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인도적 차원의 일시 귀국을 허용한 정부의 정책적 조치였다.

36년 동안의 일제 식민지통치와 태평양전쟁의 산물로 일본에는 80만 명의 동포들이 살고 있었다.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조총련계 동포들은 출신이 대부분 남한 지역이면서도 북한을 지상천국으로, 남한을 생지옥으로 선전하는 등 극단적인 반한(反韓)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들의 허위선전이 조국의 발전상을 잘 모르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인도적 차원의 고향방문을 허용, 조국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성을 느꼈다.

마침내 1975년 9월 추석을 기해 주일 대사관과 민단(民團)의 주선으로 조총련계 동포 720여 명의 첫 모국방문이 실현되었다. 부산항과 김포공항은 이들의 가족상봉으로 울음바다가 되었다. 이들의 성공적인 모국방문 결과는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귀국을 망설였던 조총련계 동포들에게 큰 충격을 주어 그 뒤 모국방문

희망자들이 줄을 이었다.<sup>56)</sup>

타국에서

어제 같은 지난 일도 아득한 옛날인데  
바다 건너 떠나면 타국에 내가 있네  
비행기가 날 때마다 가고 싶은 내 마음  
다정한 고향의 품속이  
꿈속의 일만 같아 두고 온 산천  
두 눈에 보이네

(정두수, 박춘석, 이미자, 1976)

수식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가수 이미자가 노래한 「타국에서」는 발표 시점으로 보아 조총련계 제일교포의 모국 방문을 소재로 한 노래이다. 노랫말의 의미는 단순하다. 어제 막 일어난 듯한 고국의 추억은 곰곰 생각해 보니 아득한 옛날의 일이다. 일본 땅에 건너 온지 오랜 세월이 흘렀다. 고국을 향해 날아가는 비행기를 볼 때마다, 고국 방향인 서쪽 하늘에서 저녁노을이 질 때마다 두고 온 고향 산천의 모습이 두 눈에 또렷이 떠오른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1.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 우네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 메어 불러 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여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2. 가고파 목이 메어 부르던 이 거리는  
그리워서 헤메이던 긴긴 날의 꿈이었지  
언제나 말이 없는 저 물결들도

56) 1975년 추석에 시작된 조총련계 동포의 귀국 행렬은 이듬해인 1976년 한식 때까지 이어졌으며, 그 숫자는 겨 6개월 사이에 무려 7,000여 명을 넘어섰다. 해외동포모국방문사업은 지리적·정치적 여건상 제일동포로부터 시작했으나, 점차 중국거주 동포와 소련거주 동포들로 확대되어 갔다.

부딪혀 슬퍼하며 가는 길을 막았었지  
돌아왔다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황선우, 황선우, 조용필, 1976)

가왕(歌王) 조용필의 데뷔곡이자 출세곡이다.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시점(時點)과 내용으로 볼 때 「타국에서」에 이어지는 노래이다. 1절에서 화자는 타국으로 떠난 형제가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동백꽃이 수십 번 피었다 저도 떠난 형제는 소식조차 없다. 오륙도가 바라보이는 산언덕에서 귀향(歸港)하는 연락선에 기대를 걸어볼 뿐이다. 2절에서는 화자가 이제 막 귀국한 재일교포로 바뀐다. 귀향은 현해탄의 검고 거친 물결만큼이나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는 돌아와 낮익은 부산 거리를 거닐고 있으니 벅찬 가슴을 억누를 길 없다.

### 3. 해외 이민

#### 나성에 가면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사랑의 이야기 담백 담은 편지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하늘이 푸른지 마음이 밝은지  
즐거운 날도 외로운 날도 생각해 주세요  
나와 둘이서 지낸 날들을 잊지 말아줘요

(추임새)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함께 못가서 정말 미안해요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안녕 안녕 내 사랑

(길옥윤, 길옥윤, 세샘 트리오, 1978)

나성(羅城)은 로스 엔젤레스(Los Angeles)의 한자식 표기이다.

서울특별시 나성구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 교민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다. 교민이 집중 거주하는 인근의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영어 한 마디 할 줄 몰라도 조금도 불편 없이 생활이 가능할 정도이다.<sup>57)</sup>

「나성에 가면」은 1978년에 발표되었다. 1902년 하와이로 가는 첫 이민자가 나온 지 70여 년이 지난 때였다.

1960년대 초 광복 후 최초로 17세대 92명의 해외이민이 브라질을 향해 떠났다. 군사정권 시절의 일이었다. 이를 노래한 가요가 「브라질 이민선」(김문용, 나음과, 유인수, 1962)이다. 2절의 “이역만리 낯선 나라 떠나는 내 겨레야. 제2부두 떠나갈 때 아픈 마음 달래며 친척들의 눈물 …”이라는 구절에서 보듯 이별의 아픔을 그리고 있다. 1970년 무렵에는 「김치 깎두기」(김영일, 이봉룡, 김용대, 1970)처럼 고국에 대한 향수를 음식을 빌어 표현한 노래가 나오기도 했다.<sup>58)</sup>

「나성에 가면」은 나성의 교민이 고국을 그리워하는 망향가가 아니다. 오히려 나성으로 가는 이민자를 떠나보내며 부르는 대중가요이다. 세대가 변했다. 1970년대 후반이 지나면 고국의 입맛을 잊지 못해 LA 갈비<sup>59)</sup>를 만들고, 이를 고국에 수출까지 할망정 새로운 망향가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초창기의 미주(美洲) 이민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 보려는 것이었다면 이 무렵부터 미국을 비롯한 해외 이민은 기회와 약속의 땅에서 신분 상승을 목표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사 뿐만 아니라 곡조의 분위기가 경쾌하고 밝은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세상이 바뀐 것이다. 70년이라는 시간적 거리는 대중가요의 정조(情調)를 이처럼 바꾸어버렸다.

57) 『연방 센서스』(2007)에 따르면 2005년의 통계로 미국 124만, 캘리포니아에 40만, 나성에 20만, 오렌지 7,5000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유학생과 불법 장기 체류자를 감안하면 60만 이상으로 추측된다.

58) 「김치 깎두기」의 화자가 있는 곳은 1절이 미국, 2절은 일본, 3절은 대만이다.

59) 「LA 갈비」의 어원에 대해서는 다른 주장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 4. 남북 이산가족 찾기와 이산가족 고향방문

상잔(相殘)의 참극을 겪고 대립과 갈등으로만 치닫던 남북 관계에도 회미하나마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1971년 8월, 남측의 이산가족 찾기 남북적십자회담 제의와 이듬해에 나온 7□4 남북공동성명은 전쟁으로 인한 이산의 슬픔을 다시 한 번 온 국민의 관심사로 만들기에 족했다. 후자는 박정희 정권의 10월 유신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지만,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녹 슬은 기차길」(김관현, 홍현걸, 나훈아, 1972) 같은 노래가 등장하기도 했다.

전쟁으로 헤어진 부모를 그리는 유행가는 1980년대 초반에 다시 한 번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1983년 여름, KBS는 남북이산가족찾기 방송을 시작했다. 세계 방송사상 유례없는 최장기 실황방송으로도 꼽히는 이 프로그램<sup>60)</sup>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산의 비극이 현재 진행형이며 남의 일이 아니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잃어버린 30년」(박건호, 남국인, 설운도, 1983)이 크게 유행했으며, 영화 「남과 북」의 주제가였던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한운사, 박춘석, 곽순옥, 1962)가 다시 유행의 바람을 타기도 했다.<sup>61)</sup>

남북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1천만 이산가족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남측의 제의를 북한의 조선적십자사가 받아들였다. 이후, 남북 양측의 회담은 결렬과 재개를 거듭했다. 마침내 1985년 9월 20~23일의 3박 4일간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 공연단'의 동시 교환방문을 실현하기에 이르렀다.<sup>62)</sup> 그 사이에 대한민국의 정권은 3공화국에서 5공화국으로 바뀌었다.

---

60) 관련 자료는 2016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61) KBS의 남북 이산가족 찾기 방송 열기에 힘입어 이산을 주제로 하는 가요 붐이 일기도 했다. 30여 곡의 가요가 만들어졌다. 『경향신문』 1983. 8. 8.

62) 이산가족 고향방문사업은 방문지역과 방문단 규모가 제한되었고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산가족이 직접 남북한을 왕래하면서 가족·친지들과 만난 선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대중가요에 나타난 이주와 이산

이산가족 고향방문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왔다. 분단과 전쟁이 가져온 이산의 아픔을 달래주는 최초의 가시적인 성과였다. 「평양 아줌마」(나훈아, 나훈아, 나훈아, 1985)는 바로 당시의 감격을 읊은 노래이다.

### 평양 아줌마

오늘따라 지는 해가 왜 저다지 고운지  
붉게 타는 노을에 피는 추억  
잔주름에 고인 눈물  
하루에도 열두 번씩 그리운 고향  
엮어지면 코 닿을 듯 가까운 고향 아~아  
오마니 아버지 불러보는 평양 아줌마

평양 아줌마는 전쟁 중에 고향에 두고 남으로 내려 온 우리의 이웃사촌이다. 어느 맑게 갠 날 저녁 붉게 타는 저녁노을을 보고 있자니 고향 생각이 애타게 떠오른다. 열차를 타면 당장에 닿는, 지척(咫尺)의 거리인데.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불러본다.<sup>63)</sup>

## V. 나오며

이제는 아무도 이주와 이산을 노래하지 않는다. 고향을 다룬 대중가요가 나온 적이 언제인지 까마득하다. 현실세계에서는 이주와 이산 현상이 사라진 게 아니다. 이주와 이산의 공간이 나라 안을 넘어 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지 오래인데도 그러하다.

우리의 대중가요가 이주와 이산을 소재로 삼게 된 시초는 일제의 수탈 정책이었다.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물적 수탈로 농토를 빼앗긴 농민들은 만주를 비롯한 국내 각지로 살길을 찾아

63) 「서울아 평양아」(김병걸, 박현진, 현철, 1985)도 이산가족 고향방문을 소재로 만들어진 노래이다.

떠났다. 그곳에서, 혹은 그 과정에서 가난과 배고픔을 겪으면서 고향을 노래했다. 물질 수탈은 인력 수탈로 이어진다.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강제로 조선인을 전장으로 탄광으로 내몰았다. 징병과 징용 등의 외부 요인이 작용해 이주와 이산을 노래한 망향가를 탄생시킨 것이다.

해방이 찾아들면서 고국을 등진 이주민과 끌려간 사람들의 귀국을 노래한 대중가요의 출현은 당연한 일이었다.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진 한반도의 상황은 많은 이주민을 낳았고 이주민은 이산의 슬픔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 한 차례 외부 요인에 의한 이주와 이산이 고향 생각을 소재로 삼는 대중가요를 양산하기에 이르렀다.

휴전으로 전쟁이 일시 마무리되고 1960년대에 들어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일변하기에 이른다. 외부 요인이 아니라 국내 요인에 따른 이주와 이산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산업화의 성과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60년대 중후반부터 시골을 떠나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이동하는 이촌향도 현상이 줄을 이었다. 이러한 사회 모습을 반영한 대중가요들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1985년에 나온 「평양 아줌마」와 「서울아 평양아」를 거의 마지막으로 실향민의 처지에서 이주와 이산을 직접적으로 노래한 유행가는 눈에 띄이지 않는다. 1987년의 대통령직선제 쟁취 운동으로 권위주의 정권은 종식을 고했다. 사회의 다변화에 따라 구성원들의 욕구가 분출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89년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1990년에는 소련, 1992년에는 중국과 정식 수교를 맺었다. 두 나라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을 언제든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힘입어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루트를 이용해 북중(北中) 국경 지대에서 북한의 이산가족과 상봉하는 감격을 누리는 일도 있었다. 이처럼 세계적인 정치·외교상의 변화가 이주와 이산을 직접적으로 다룬 망향가가 등장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가져온 사회의 변화이다. 교통의 발달은 떠난 자와 남은 자의 거리를 단축시켰다. 철도를 이용하든, 자동차를

이용하든, 선박을 이용하든 시간은 빨라졌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2시간 남짓한 시간이면 부산 항구의 파도소리를 들을 수 있다. 전철 노선의 연장은 수도권 외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시켰다. 마이 카 시대에 접어든 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거미줄처럼 늘어났다. 이를 이용해 승용차는 국토를 누비고 있다.

바다는 어떠한가. 웬만한 큰 섬은 육속(陸續)되었으며,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해 해저 터널을 뚫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육속되지 않은 외딴 섬일지라도 최신식 고속 페리가 경쾌하게 물살을 가르며 오간다. ‘구름도 울고 넘는 저 산 아래’의 내 고향은 이미 옛말이 된지 오래이며, 이제는 아무도 ‘떠나가는 연락선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

전화, 삐삐, 컴퓨터, 휴대전화, 스마트 폰 등이 시대와 함께 발달해 가면서 대량으로 보급되었다. 화상전화를 이용해 멀리 떨어진 가족을 눈앞에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는 일이 가능해졌다. 통신기기의 발달과 그로 인한 정보의 습득은 빨라지고 있다. 눈이 부실 정도이다. 고향을 눈앞에 펼쳐지게 만든 첨단 통신기기 덕분에 이주의 체감 온도는 거의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상 풍속도가 이렇게 변해가면서 가요계는 더 이상 이주와 이산을 소재로 삼지 않기에 이르렀다. 상상이 현실로 바뀌면서 상상을 담는 그릇이었던 대중가요를 더 이상 찾지 않게 된 것이다. 초창기로부터 1980년대에 걸쳐 사랑과 망향이 대중가요 주제의 두 축(軸)이었으나, 사랑은 남고 망향은 사라진 것이다. 최근의 인기곡을 살펴보면 사랑이 아닌 인생의 애환을 노래 한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sup>64)</sup> 사랑 노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64) 이주와 이산이 아니더라도 국민적 관심사나 사회적 공분(公憤)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을 소재로 한 노래도 거의 만들어지지 않은 지 오래다. 대중가요가 사회상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반증이지만, 그 자체가 사회의 추세를 대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황석영이 최근에 나오는 소설들을 두고 “서사는 사라지고 서정만 남았다”라고 개탄하는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변화라고 하겠다.

1980년대 말, 국력 신장에 따른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에 힘입어 많은 국민들이 해외이민, 어학연수, 조기유학 등의 명목으로 세계 곳곳으로 떠났다. 이 시간에도 국제선 여객기를 타기 위해 사람들은 공항 대합실로 모여들고 있다. 이주의 공간적 거리는 훨씬 늘어났다. 대중가요 초창기인 일제 강점기와 1960~70년대까지의 이주가 절대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것이었다면 80년대 말 이후의 이주는 상대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신분상승을 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주의 사례는 증가하겠지만<sup>65)</sup> 고향과 고국은 더 이상 절박한 느낌으로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이러한 추세는 되돌리기 힘들다. 근현대사의 고비마다 터진 이주나 이산과 관련된 굵직한 사건으로 인해 무수한 망향의 노래가 나왔으나, 이제 대중가요를 통해 이주와 이산의 모습을 살펴보기란 어려운 것이다.<sup>66)</sup>

서강대학교, neungyong@naver.com

주제어(Key words):

대중가요(a popular song). 이주(emigration). 이산(dispersion).  
망향가(a song of nostalgia)

(투고일: 2016. 04. 05, 심사일: 2016. 04. 23, 게재확정일: 2016. 05. 20)

---

65)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탈북자, 라이 타이한과 코피노, 조선족과 동남아 등지 출신의 이주자 문제가 새로이 등장한지 이미 오래다.

66) 이주와 이산의 아픔을 넘어 통일의 염원을 담은 대중가요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홀로 아리랑」(한돌, 서유석, 1990), 「라구요」(강산에, 1992), 「서울 평양 만나질」(서관석, 정의송, 김혜연, 1994), 「서울에서 평양까지」(조재형, 윤민석, 신형원, 1995), 「그날에」(정원보, 이승철, 2015) 등이 그러하다.

<국문 초록>

대중가요에 나타난 이주와 이산  
-초창기에서 1980년대까지-

허 부 문

이 글은 대중가요에 나타나는 이주(移住)와 이산(離散)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아 그 속에 녹아있는 시대상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대중가요 속의 망향가(望鄉歌)에 담겨있는 근·현대 어느 시기의 이주와 이산의 의미를 찾아내고자 했다.

1930년대 초에 들어오면 일본 레코드 회사들이 앞을 다투어 조선에 지사를 설립하고 영업에 나섰다. 조선인이 운영하는 레코드사도 설립되었다. 조선에도 본격적인 유행가 시대가 찾아들었다. 동시에 이주와 이산을 다룬 대중가요가 등장하고 유행하기 시작한다. 본격적인 망향가는 만주사변-중일전쟁-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전쟁의 시작과 함께 등장했다.

1931년 일제의 만주 침략 결과, 이듬해에 꼭두각시 만주국이 들어섰다. 신생국가 만주국과 조선총독부의 시책에 따라 일제의 이민 정책이 실시되었고, 살길을 찾아 만주로 떠나는 조선인 이민이 늘어났다. 이민의 증가와 함께 떠난 고향을 그리는 망향가가 대거 만들어졌다. 그 중에서 「찔레꽃」이 대표적이다.

많은 조선인들은 강제 병합 직후부터 일자리를 얻기 위해 일본 땅으로 건너갔다.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많은 조선인들이 징용을 통해 일본으로 끌려가기도 했다. 항일 운동이 크게 제약 받았던 공간적 상황 때문에 일본을 배경으로 삼은 망향가는 찾아볼 수 없다. 조선인들은 조선과 일본을 오가는 ‘관부연락선(關釜連絡船)’을 빌어 이산의 아픔을

간접적으로 표출했다.

1910~20년대에 농토와 토지를 수탈해 조선인들을 대거 만주로 내몬 일본은 1930년대 후반이 되면 인력 수탈까지 자행하기에 이른다. 태평양전쟁 말기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일제는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인을 대거 동원했다. 징용, 징병, 일본군 위안부 등이 그것이다. 이 시기에 이주와 이산의 아픔을 노래한 대중가요는 상황의 제약에 따라 나오기 힘들었다. 해방이 되어서야 당시 상황을 그린 가요가 등장한다.

일제의 항복으로 해방을 맞이한 감격과 희망을 노래한 대중가요도 보인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삼팔선이 들어선 것이다. 삼팔선의 확정과 국토분단에 따른 양측 인민들의 비애는 「가거라 삼팔선」 등을 통해 반영되었다.

분단은 전쟁으로 이어졌다. 현대사 최대의 비극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피난과 피난살이, 부모와 가장을 잃은 이산의 슬픔, 떠나온 고향을 그리는 망향의 심정 등은 전쟁 기간뿐만 아니라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꾸준히 만들어졌다. 한편, 북한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토와 산업시설을 복구하고자 부족한 노동력을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를 들여와 충당하려고 했다. 이에 대부분이 남한 출신인 재일교포들의 많은 수가 북한행을 택했고, 그 이산의 슬픔이 대중가요로 표현되기도 했다.

1961년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세력은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경제개발을 내세워 상당한 실적을 올렸다. 이에 잘살아 보기 위해 농촌을 떠나 대도시로 향하는 이촌향도의 거대한 물결이 꼬리를 이었다. 농경사회는 해체되어 갔으며 온 나라가 산업화를 향해 치달았다. 산업화와 이촌향도 시기에 대중가요는 갖가지 이주의 상황과 애환을 그려내었다. 향도(向都)와 이별, 떠나온 고향의 극심한 변화, 팍팍하기 만한 대도시의 삶, 지을 수 없는 망향의 감정, 명절의 귀향 등이 그것이다.

## 대중가요에 나타난 이주와 이산

해방 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조총련계 재일교포와 적성국가 거주 교포들이 1970년대 중반에 고국을 찾았다. 해외동포모국방문사업의 결과였다. 이 상황은 「돌아와요 부산항에」와 같은 명곡을 낳기도 했다. 군사정권 시기에 건국 후 최초의 이민이 브라질로 떠난 후 해외로 향하는 한국인이 늘어났다. 이를 노래한 가요들도 생겨났다.

1970년대에 들어 남북 사이에도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1971년 이산가족찾기 남북적십자회담, 이듬해 7·4남북공동성명 등의 정치적 양상을 노래한 대중가요가 등장했다. 1983년에는 KBS의 남북이산가족찾기 방송이 전파를 타면서 사람들은 분단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새삼 자각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산의 아픔을 다룬 대중가요가 대거 만들어졌다. 1985년에는 미흡하지만 남북이산가족상봉이 최초로 실현되기에 이르렀고, 이 사건도 대중가요로 다루어졌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이주와 이산을 직접 다룬 노래는 보이지 않는다.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진 이후 분출되기 시작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는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를 이끌어 내었다. 이어서 이루어진 러시아와의 수교, 중국과의 수교는 적성국가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교통과 통신의 눈부신 발달은 떠나온 고향과의 거리를 단축시켰다. 사실상 이주의 체감온도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추세는 되돌리기 힘들다. 앞으로 이주와 이산을 다룬 대중가요가 나오는 일은 힘들 것이다.

<Abstract>

The Themes of Emigration and Dispersion in Korean Popular Songs: the beginnings~1980s

Heo Bu Moon

The present study shows images of the above mentioned period with an analysis of such themes as the emigration and the dispersion within Korean popular songs, especially those of nostalgia.

As Japanese gramophone record companies opened their branch offices in Korea since the beginning of 1930s, Korean ones were founded also. With those changes began the heyday of popular songs in Korea, of which main themes were concerned with the emigration and the dispersion of Korean people. Due to the forced mobilization of Koreans in a series of wars, such as the Manchurian Incident, the Second Sino-Japanese War, the Pacific War, appeared songs of nostalgia.

With the increase of Korean emigration into Manchuria, which was to the considerable extent forced by promoting migration policies of the Japanese governor-general in Korea as well as those of the 'Manchukuo', a Japanese puppet state in Manchuria, came on the stage songs of nostalgia such as 'Jjil-le-kkot' (찹레꽃 White Wild Rose or *Rosa polyantha*).

As far as the Japanese mainland was concerned as a destination of Koreans' emigration, songs of nostalgia could be hardly found.



## 대중가요에 나타난 이주와 이산

It was due to Koreans' awareness of the oppression from the part of Japan and the consequent restrictions of expression about their own negative mind and emotion toward Japan. The anguish from dispersion could be only implicitly expressed in those songs about Shimonoseki-Pusan ferry (關釜連絡船).

It was not until the National Liberation of Korea in 1945 and after that popular songs about suffering emigration and tragic dispersion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ppeared. Such songs could be hardly composed before the National Liberation due to the restrictions on open and free expression, though there had been already the Japanese seize of agrarian lands in 1910s~1920s and the consequent massive emigration of Koreans into Manchuria, and exploitations of human resources in the form of requisition, conscription, even kidnaping of girls for sexual slaves ('comfort women') during the end period of the Pacific War.

The pleasure of the long waited National Liberation was short lived due to the division of Korea into South and North. Koreans' deep sorrow at that time was expressed in popular songs such as 'Ga-Go-Ra-Sam-Pal-Son' (가거라 삼팔선 Go away The 38th Parallel North).

The South and North division led to the Korean War, the greatest tragedy in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Grievances from refugees, sorrow of losing family members, homesickness over leaving one's own birthplace lasted in popular songs even after signing the Armistice Agreement. Furthermore followed the repatriation of Japanese Koreans to the North Korea, although most of their birthplaces were located in the South Korea, for the purpose of reconstruction of the North Korea, which was heavily devastated during the war. Sorrows of dispersions were

expressed in the popular songs of those days also.

An economic development project in the South Korea began to be realized by the military government since 1961 coup. This project gave rise to the tremendous social changes such as the dissolution of traditional peasant societies,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massive emigrations from villages to cities. Shocks from immense visual changes in birthplaces, stresses from harsh conditions of strange urban life, nostalgia that never calmed down, exciting mind of revisiting birthplaces during traditional holidays, all these consequences of domestic emigrations were described in popular songs.

In the mid-1970s there were massive homecomings of overseas Koreans including the Pro-Pyongyang Japanese Koreans and other Koreans of the hostile countries owing to special visiting project. This social atmosphere was also the precondition that brought out famous popular songs such as 'Dol -A-Wa-Yo-Bu-San-Hang-E' (돌아와요 부산항에 Come back to Pusan Port).

In 1971, the first Red Cross talk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ere held for the reunion of divided families. On July 4, 1972, the North-South Joint Statement was issued. In 1983 KBS hosts a 'Campaign to Reunite Ten Million Divided Families' telethon that attracts millions looking for their divided families. This social atmosphere was also reflected in popular songs of these days.

Since the mid-1980s, however, we can hardly find popular songs concerning emigration and dispersion. Many changes such as the liberalization of overseas travels in Korea, the treaties of amity with the Soviet Union as well as China, dazzling advance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have shortened distances between everyone's present place of residence and one's own

대중가요에 나타난 이주와 이산

birthplace and also softened feeling of lonesomeness and isolation which caused from emigration. This means almost the end of popular songs about emigration and dispersion.